

2021 새해 새 설계

이승옥 강진군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창출에 총력”



“2021년은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로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균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새해를 맞아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균형 최우선 목표로 삼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의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진산업단지의 기업 착공을 조속히 유도하고, 강진산단 인근 35만㎡에 3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강진2산단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를 위한 정주시설 확충으로 청년인력 유입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일자리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 간 연계를 강화해 취업률을 높이는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 군수는 “산단이 추가 조성되면 800명의 고용 창출과 8335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존 산단과 연계된 업체를 유치해 강진의 미래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체류형 관광지 개발에

제2산단 조성 8300억 투자유치

문화예술 기반 ‘청정강진’ 관광

농축산 비대면 유통채널 활성화

도 박차를 기한다.

강진군은 지난해 생활밀착형 체험관광인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와 ‘남도답사 1번지 관광택시’ 등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관광소득 모델을 제시했다.

앞으로도 관광객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 농수산물 구매 유도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소가 되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담없는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청정강진 이미지를 부각해 코로나19 이후 관광지도도를 새롭게 그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표 관광지인 가우도를 관광과 레저, 휴양시설을 갖춘 강진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한다. 가우도 일대 9만여평 부지에 2024년까지 3700억

2021년 주요 사업

- ▲ 강진 제2산업단지 조성
- ▲ 관광·레저·휴양지 가우도 개발
- ▲ 120억 투입 관광상품 ‘고려하라! 강진’ 개발
- ▲ 로컬푸드 직거래 300억 달성
- ▲ 목은지·쌀귀리 활용 강진 대표식품 개발
- ▲ ‘위대한 유산’ 프로젝트로 강진미래 설계
- ▲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해 380실 규모의 리조트형 호텔과 풀빌라 160실, 해상케이블카와 체험형 관광시설을 조성한다.

120억원이 투입되는 지역개발 관광사업 ‘고려하라! 강진’을 통해 관광상품 개발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강진만 생태공원과 지방정원, 몽마르뜨 언덕과 하멜촌 조성사업, 월출산 권 관광 명소화 사업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관광객 500만명 시대를 여는데 주력한다.

농림축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

면 유통채널을 활성화하고 농식품 가공과 유통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강화한다.

‘직거래 고정고객 15만명 이상, 매출 300억원 달성’을 목표로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해 지역 농산물 선순환과 소득증대를 도모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발효식품의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강진군 대표 식품인 ‘강진 목은지’와 ‘쌀귀리 가공식품’ 개발과 판매를 활성화한다.

강진의 100년 후 미래를 설계하는 ‘위대한 유산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동성리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신규 마을 조성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 주민밀착형 SOC 확충을 통해 지역개발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 군수는 “코로나19에 맞닥뜨리면서 섬지역을 제외하고 강진군이 전국에서 유일한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군민들의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면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더불어 행복한 강진’을 군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도시재생+농촌중심지 활성화+스마트 그린도시

정부 공모 잇단 선정 강진읍 확 바뀐다

2023년까지 터미널 주변 활성화 원도심 ‘위대한 유산’ 프로젝트 다산 정신 잇는 ‘그린도시’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피하우스’ 조감도.

강진읍이 확 바뀐다. 정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과 농촌중심지 개발에 이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선정되면서다. 특히 강진군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종합선도형으로 전국 군단위에서는 유일하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읍 동성리 일원이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뉴딜사업이 추진 중이다. 또 강진읍 중심거점인 강진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농림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오는 2023년까지 진행된다. 여기에 이들 사업과 연계해 한국판 뉴딜 첫 공모사업으로 불리는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도 추진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원도심 지역에서 진행된다. 사업명은 ‘위대한 유산 프로젝트’로, 미래 위기를 내다보며 30년 후를 생각하는 강진을 위대한 유산 만들기이다.

강진군은 추진전략으로 ‘물려주고 싶은 주거환경’, ‘마르지 않는 샘물 주민문화로서 사회통합’, ‘안전하고 튼튼한 마을로서 도시 경쟁력 확보’, ‘다

음 세대를 생각하는 주민사업인 경제와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안전 위험도가 높은 빈집과 방치 건축물을 매입해 주민들의 소통공간인 휴게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한다.

청년일자리 증대와 청년 역량강화, 지역경쟁력 향상, 친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청년안테나숍 조성하고, 관광객 체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짓는다.

농촌중심지 활성화는 농촌지역 읍·면소재지에 교육, 의료, 문화, 복지, 경제 등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과 연결해 주민 삶의 질 획기적으로 높이는 사업이다.

총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강진읍 중심거점

인 강진버스터미널 주변 반경 약 500m 내에 작은 영화관·다함께돌봄센터·어울림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집적화한 공동체활성화센터 신축, 공용주차장 설치, 보행환경 개선, 버스 승강장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한다. 서비스 전달체계가 용이한 배후마을(읍 외곽지역) 2곳 정도에 소규모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도 설치한다.

강진군은 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신에 입각해 목민심서에 나와 있는 ‘천택(川澤), 양림(養林), 치료(治路)’를 실천하는 스마트 그린도시를 추구한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만 이루어진 도로 공간에 가로수와 어우러진 탄소제로 교통로를, 콘크리트 수로를 친환경 녹색수로로 탈바꿈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60억원 등 총사업비 160억원을 투입해 앞으로 2년간 남포, 목리, 평동, 강진만 생태공원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파편화된 녹지공간을 연결해 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만남 공간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들 공모사업은 각 100억원 이상 투입되며 국비와 도비 중심으로 추진된다”며 “군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지역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중요 사업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부서별 1억 이상 신속 집행...지역경제 살려라”

강진군, 사업추진 계획 보고회

강진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 1억원 이상 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승옥 군수 주재로 지난 11일 열린 보고회에서 강진군 실·과·소장은 1억원 이상 사업의 추진 계획을 보고한 뒤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 등에 논의했다.

강진군은 매일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신속집행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열어 사업의 적기 추

진을 유도하고,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신속집행 추진 지침이 시달되기 전 강진군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발빠르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위기 상태에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군정 역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장과 직원이 협력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산 뽕잎막걸리, 웰빙술로 인기

떫떫함 없고 숙취 적어

강진군 도암주조장에서 생산한 뽕잎막걸리가 웰빙 주류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예로부터 뽕잎은 각기병과 몸이 붓는 증세, 뇌졸중, 동맥경화, 소갈증(당뇨병) 등에 효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 뽕잎막걸리는 뽕잎을 건조 후 250~300℃에서 20분 볶아 녹차와 같은 방법으로 8일간 발효시켜 만든다.

막걸리의 떫떫함을 없애 맛이 시원하고 숙취가 적은 것이 특징이라고 강진군은 설명했다.

원료 곡으로 강진군 도암면 간척지에서 생산한 강진쌀과 뽕잎, 지하 200m에서 끌어올린 깨끗한 물 등 좋은 재료를 사용해 전통 기법으로 기능성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뽕잎 막걸리는 전통적 기법과 지역에서 나는 쌀을 원료로 생산한다”며 “뽕잎막걸리가 지역 특산품을 넘어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제품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